

팔덕 수변개발 성공 청신호

순창군, 강천파크 대상자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호텔·온천 등 들어서

순창군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부지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관광호텔(70실)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돼 수변 개발사업 성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최근 (주)강천파크(대표자 서용석)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주)강천파크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60여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관광호텔과 보양온천, 대형연회장, 레스토랑 등이 들어선다.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일환으로 들어서게 되는 관광호텔 조감도.

이 사업은 사업초반 시행을 책임질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8월 민간투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조성될 관광호텔은 향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민박과 모텔 등 열악한 숙박여건으로 1박 2일형 관광객 유치에 어려웠지만 이번 관광호텔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모델 구축에 힘이 실

리고 있다.

특히 여행 트렌드가 점차 고급화 전략으로 변해 가고 있어 군은 관광호텔 조성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여는 핵심 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변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순창군이 사업비 114억원을 들여 수 체험센터와 동굴형체험관, 온천관광정원 등도 조성하고 있어 시너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순창 팔덕면에 전국 단종 10대 명산인 강천산도 위치하고 있어 수변개발사업은 정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팔덕지 수변개발사업은 민선 7기 3대 비전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라며 "행정과 민간이 합심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양희재 의원 "서남권 개발·시외버스터미널 관리방안 모색"
한명숙 의원 "서부권 다목적 어린이공원 쾌적한 공간 만들어야"

남원시의회 2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희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서남권 개발과 시외버스터미널 관리방안을 촉구했다.



양희재 의원 한명숙 의원

양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의 도시발전 현상은 상부지역인 동부권의 학교·도동권역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공공청사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며 서남권과 다소 불균형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서남권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신정대로, 교통대로 등 도로망이 확충되고 합파우 관광클러스터와 금암공원조성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노암산업단지 분양이 증가 추세에 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개발 등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구도심 활성화 대책은 다각적인 연구와 투자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원역 진입로 변의 공동묘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산림보전의 행정재산 가치 여부를 심층 분석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의원(총무위원장)은 서부권에 다목적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물놀이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과 휴게공간, 그늘린터 등을 충분히 갖추어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현재 남원시 인구의 감소 추세에는 저출산도 문제이고 아이 기르기에 대한 인프라가 남우녀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미 춘천시와 시흥시, 안주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군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순창군은 지난 22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2만 9천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 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500만원, 후유 장애 시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전차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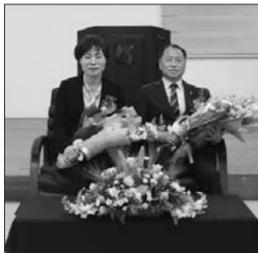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험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득수 임실축협 조합장 취임식

임실축협은 지난 21일 본점 3층 회의실에서 제14대 한득수 조합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군의장, 김왕중 부의장, 장종민, 박영자 군의원 및 한완수 도의회 부의장, 이승계 농협 군지부장, 박희승 제14대 한득수 조합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대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농업 농촌과 축산 환경이 그 어느때보다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조합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한 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나 또 한 편으로는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장이 되어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득수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제14대 임실축협 조합장에 취임하면서 농업, 농촌 그리고 축산업 발전과 조합원 소득 증

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한 편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나 또 한 편으로는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장이 되어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합원이 주인인 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사랑받는 축협,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축협을 만드는 것이 임내 최대 목표이다"며 "반드시 이를 해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실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 처리했다.

신대용 의장은 폐회사에서 "현안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인 만큼 신덕 오염도양정화업 등록 철회, 목적포수변도로 개설 및 수변개발추진, 태양광발전 허가 민원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군민 의견을 반영한 현안들을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민행정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삶의 질 향상 인프라 조사

남원시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이를 통해 올해 시정 포어인 '진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에 걸맞는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조사를 현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지역의 창의력을 적극 장려하고 활용해 국가 예산 공모사업과 향후 예산 편성 기초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사랑상품권 25일 발행

남원시가 지역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을 25일부터 발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억원 규모로 5%할인해 1인당 월 50만원까지 NH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관내 48개 금융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병원 등 1,550여 가맹점을 확보했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자금이 대규모로,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한 방지하고, 현금유동성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환주 시장은 "상품권이 발행돼 소상공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